

야권 유력 주자 윤석열 등판...호남 민심 향배 주목

중도세력 '제3지대' 부상 관심 정치적 행보따라 요동 가능성 내달 광주 방문 '호남 공들이기' 20%대 지지율 이어질 지 의문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대권 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 20% 상회라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따라 호남 민심은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현재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고 있지만, 입당할 경우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제3지대'에서 구심점 역할을 지속하고 중도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불었던 '녹색(국민의당) 돌풍'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호남 지지세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8일 공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2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0.8%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서는 열세지만, 범야권 진영의 후보로서는 상당한 지지세를 보인 것이다. 앞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공개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각각 28.2%, 53.2%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남 지지율 20%'는 범야권 진영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수치다. 그동안 대선 결과에서도 호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웃돈 적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호남에서 10.5%를 득표하면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호남에서 첫 1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보수정당 후보들이 호남에서 10% 득표율을 거둔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20%를 넘어 30%에 육박하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도 '5·18 민심'을 꺼안으면

서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종배 전 민주평화당(민생당 전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제41주년 5·18 기념일 이틀 전엔 메세지를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5·18로 대표되는 호남 민심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윤 전 총장의 20%대 호남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권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의 '호남 공략'이 본격화될 경우 호남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향후 대권 후보 검증이 이뤄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는 지지율이 크게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이 현재 보수정당 소속이 아닌 중도세

력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상당 부분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중도 세력으로서 '제3지대'로 부상할 경우 호남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된 정치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내로남불'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된 모습에 실망한 지역민들의 표심이 윤 전 총장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라며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에게 저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오겠느냐"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2의 반기문...완주 어려울 것”

민주, 윤석열 대선 출마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되 완주하기 어렵다고 본다. 과연 검증의 과정을 건널 수 있겠느냐”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1일 1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검사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강패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면 정치강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오영환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이 자기 라인 후배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며 전화를 들렀는데, 자신을 향한 노골적 충성을 요구한 명령”이라며 “검찰 기록권을 보위하는 총사령관”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치참여를 위해 사표를 던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 전 총장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비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기관에 기용됐던 공직자들이 야권 후보로 대권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잘 씌워진 포장지도 벗겨지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수장들이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이고, 국정농단 사태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윤석열은 국민이 만들어 준 임기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 헌신적처럼 버린 점에서 판박이”라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해전 영웅들 어루만지는 여야 대표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 시험대’ 오른 윤석열

‘X파일’ 의혹·사법 리스크·국정운영 능력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 하면서 본격적인 검증의 시험대에도 오르게 됐다. 특히 최근 ‘윤석열 X파일’ 논란 등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자신을 향해 겨누지는 검증의 칼날을 견뎌내야 한다. 국정 운영 능력도 함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권 고지로 향하는 데 있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들어 있다는 이른바 ‘X파일’ 의혹과

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법치와 정의의 강조해온 윤 전 총장이 정작 자신과 가족 문제에 있어선 깨끗하지 못했다는 공격에 노출될 경우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서다. 먼저 윤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유평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 등으로 이날 초 입건됐다. 공수처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총장 입당에서는 수사가 말끔하게 종

결되기 전까지 두고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이 돌출 악재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만 서너 건에 달한다. 김씨의 경우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등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중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일 선고되는데,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직후인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학교급식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급식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현안발언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의 안전과 건강은 학생뿐만 아닌 급식실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사례를 들며 “특히 튀김과 볶음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미세먼

지 등 유해 물질 노출로 이 들은 마치 가스실에 있는 것처럼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에 대해 ▲열악한 조리환경에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사·도교 육청의 정밀 역할조사와 건강실태조사 ▲교육부 주도의 통일된 개선방안을 일선 교육청에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외 7중(소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접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중)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개발,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함) 지석강 바라봄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개발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직성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점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 캠핑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면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시장 내 점포 0시점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물물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장성토지 (분양 매매)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010-8660-9801

010-6670-9800